

“무등산 정상 군부대·방송시설 이전 시급하다”

국립공원 지정 10년 토론회

무등산이 원래 모습을 찾고 환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상부 군부대와 방송통신시설 이전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을 맞아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등산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상복원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3일 광주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위회의실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 무등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명진 무등산풍경소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와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최관수 무등산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과장은 장불재와 중봉, 북봉에 각각 설치된 방송통신시설 통합 및 이전 문제와 정상부 군부대 이전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최 과장은 군사시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정상구역 일원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

이전 후 생태계 회복까지 100년

역사·문화·생태 가치 복원 위해 정상복원위원회 당장 결성해야
특색없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때 시민들의 탐방이 통제되고 차량 통행에 따른 토양유실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군사시설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아울러 멸종위기종 등 주요 동식물 서식 토지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등산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철 지역공공플랫폼 ‘광주로’ 이사 또한 ▲정상부 군부대·통신시설 이전 및 복원 ▲군사통신시설 도로 복원 등이 무등산 보존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는 중봉과 누에봉의 식생회복평가결과(50년 소요 예상)를 들면서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이전지역 생태계 회복에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등산 정상부는 역사·문화·경관·생태적 가치가 있는 만큼 환경부와 국방



2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 무등산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제공>

부, 광주시, 전남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복원위원회를 구성해 복원 원칙과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색 없는 관광사업일 뿐이다”며 “관광객을 끌어 모을 만한 독보적인 케이블카를 만들려

면 무등산을 썩대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무등산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등산은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변경·지정된 이후, 3만 230㎡이던 면적이 7만 5425㎡으로 2.5배 증가했으며, 한 해 예산은 지난해 기준 138억까지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사고’ 수습 광주 서구 한시기구 만든다

광주시 서구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한다.

2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는 ‘1국 2과 4팀’으로 구성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시기구인 아이파크 사고 수습지원단은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과는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 업무를 하는 ‘총괄지원팀’과 ‘가족상기피해지원팀’, ‘중대재해예방팀’ 등으로 구성된다.

사고수습지원과는 화정아이파크 재시공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처리하는 ‘입주예정자대응팀’과 ‘건축안전센터팀’으로 꾸러진다.

개정 안건은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뒤, 28일 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업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능오류 막자

출제기간·검토위원 늘리고
고난도 문항 따로 검토키로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오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의의심사 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검토위원 수와 출제 기간이 늘어나고, 의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의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3일 발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검토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과목별로 보면 전 공영역이 분리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검토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경제, 정치와 법 검토자문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한다. 또 전체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출제·검토 절차가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최종본 제출의 단계로 이뤄졌으나 최종본 제출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수능 의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도 만들어진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공동주택 개선 사업 지속 추진

28곳 내달 18일까지 실태조사

광주 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주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관리 등 공용시설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선정 단지의 경우 최대 5000만원(자부담 포함)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난 3월부터 17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총 28개

의 공동주택단지가 접수를 마쳤다.

서구는 이들 신청단지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월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17개 단지에 약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주차장 천장누수 및 바닥 개보수, 지하저수조 및 옥상 방수, 옹벽·단지 내 도로 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 등의 시설을 개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 산·학·연·관 협력 11개 특화분야 연구단 구성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1개 연구단을 구성, 연구단장 및 연구부단장을 임명하고 전문인력양성, 컨설팅, 애로 기술해결, R&DB,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한다.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 및 지역특화분야 등을 고려한 11개 연구단 ▲기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인공지능·빅데이터 ▲첨단운송기부품 ▲정색정환경 ▲디지털생체의료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공공·복지 분야 등을 구성하고, 연구단장 및 연구부단장을 임명했다.

연구단에는 174명의 교원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내달 초부터 지역 유관기관, 연구소,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본격적인 산·학·연·관 협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특화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비롯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한철 산학협력단장은 “11개 특화분야 연구단은 연구단장 및 연구부단장을 필두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업계 혁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모멘텀을 부여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3·1운동 103주년·백범 김구 기리며

광주백범기념관 ‘임시정부 청사 문지기의 밥상’ 온라인 체험행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광주백범기념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기념하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22일 광주백범기념관과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에 따르면 3월 1일 사전예약자를 중심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사전 신청자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문지기의 밥상’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문지기의 밥상’은 사전에 신청한(31가구)에게 제공된 밀키트(간편가정식)를 온라인 줌으로 같이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문지기의 밥상’ 메뉴는 상하이에서 생활이 극도로 빈곤할 때, 김구 선생의 어머니 껍박원 여사가 채소상이 쓰레기통에 버린 배추김치와 보고 먹을 만한 것을 골라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찬거리로 하기 위해 여러 향아리를 만드셨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배추김치와 시래기밥, 태극 기정떡을 3개의 메뉴로 구성됐다.

또 지난 16일까지 사전신청을 한 인원을 대상으로 3월 1일 전시관람을 돌며 체험문제를 풀면서 관람을 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2단계 선정

전남대학교가 농축산식품부의 ‘영농창업특성화사업’ 2단계에 재선정됐다.

전남대 SMART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은 지난 2016년 선정된 영농창업특성화사업 1단계에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는 2단계에 다시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대는 이 기간 동안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교과실습, 현장체험, 해외연장실습 등에 나서게 된다.

2단계에서는 고교생 연계를 통한 대학·고교생 역량 강화로 지역과 함께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해 시대상황에 발맞춘 인공지능형 디지털 영농기술인 육성에 주력하게 된다.

2단계 선정은 원예생명공학과가 추진한 미래전 문농업경영인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생창업연수제,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노하우와 원예분야 연구역량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이제는 “수목장” 입니다

문종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 수목장 전환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30평 이하) 수목장

대가장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

062) 464-9190